# [원세훈 재판 현장 스케치]

## 1. 오전재판

□ 10:00~11:30 ⇨ 검찰이 지난 기일 **재판부 석명사항에 대해 PPT를 하면서 설명**

□ 11:30~12:00 ⇨ 재판장이 **관련 쟁점에 대해 다시 석명**을 하자 **검찰에서** '또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니 유감이다. 왜 재판부에서 **새로운 쟁점으로 계속 옮겨가며 재판을 지연시키는가'라는 식으로 반발**함. **재판장**은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**관련성을 설명하면서 석명**을 구함에 따라 **검찰과 공방이 진행**됨

□ 12시 오전재판 종료 및 오후 2시 속개

## 2. 오전 법정 분위기

□ 검찰에서 **유감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언급**했고, **다소 감정적 설전**이 오가긴 했으나, 크게 **문제될 만한 격론이나 고성이 오간 바는 없음**

□ 검찰은 **야당 국회의원들의 법정방청정보를 사전에 알고 PPT준비**를 하고 **재판 도중에 유감표명도 수차례 한 것**으로 보임

□ 재판부도 **11:30까지는 검찰의 설명을 참고 경청**하였으나, **그 이후 설전**이 오갔음

□ **의원들이 방청하는 상황** 하에 검사와 변호인 사이의 공방이 아니라, **재판부와 검사가 상호 공방을 하는 모습**은 그다지 **보기 좋은 모습이 아님**

☞ 원세훈 변호인 **이○○ 변호사**는 재판부와 검사 사이의 **공방을 가만히 관망**하고 있는 상황이었음

□ 다만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**실체에 관한 심증이 표출**되거나 **법정 분위기가 심각하게 혼란스러운 것은 아님** ⇨ 법사위에서 **재판진행에 대한 공격성 질의가 나올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함**(이○○ 서울고등 공보관의 자체 판단)

## 3. 홍보심의관이 방청을 한 연합뉴스 황○○ 기자에게 傳聞한 사항

□ 검찰이 **재판 도중에 수차례 재판장의 절차진행이 유감스럽다는 언급**을 하였음

□ 의원들은 **재판진행상 문제가 많다는 소문 때문에 재판방청**을 온 것이라고 말함

□ 다만 재판은 신성한 것이므로 **판결 선고 후에 내부 논의를 거쳐 재판진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**이라고 함(표창원 의원)

□ **기자들의 전반적 반응** ⇨ **대법원 파기환송 후 14회 공판기일**인데 증인 한명을 신문하지 않고 **처음 재판을 하는 것처럼 진행하는 것이 이례적**이라고 의견임